



두 발로 감상하는 대도시 도보 관광① 서울

어느 나라든지 대도시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다. 그러나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대도시를 어떻게 돌아봐야 좋을지 판단하기 어렵다. 필수 관광지만 방문하거나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쉬운 방법도 있지만 도시의 좀 더 깊은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역시 두 발로 걷는 것이 최고이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을 도보로 여행하는 방법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글/임동근 기자, 사진, 지도/서울시청 제공



역사의 타임머신 암사동·몽촌토성 코스



한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쯤이다. 암사동 선사유적지는 한 곳에 여러 채의 움집을 지어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취락지로 아주 먼 옛날 한반도인의 생활 모습을 엿보고 유물을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암사동·몽촌토성 코스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암사역 4번 출구로 나가면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돼 산책로로 좋은 선사로를 만나고, 10여 분쯤 걸으면 선사시거리를 건너 본격적인 산책로가 시작된다. 싱그러움 잎이 돌아난 가로수가 늘어선 길을 따라 걸으면 강 너머로 아차산의 능선이 시야에 잡힌다. 암사동 선사거주지에 들어서면 조경이 잘된 정원의 아늑한 분위기가 마음을 넉넉하게 해준다. 정원 사이로 조성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움집 터와 복원된 움집이 자리하고, 안쪽에서는 전시관을 만나게 된다. 본격적인 고대로의 시간 여행의 시작이다.

이곳에는 모두 움집 9채가 복원돼 있는데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곳뿐이다. 집 안에는 돌로 만든 화로가 있고, 옛 한반도인이 생선을 구워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스피커에서는 움집에 대한 설명이 흘러나온다. 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빗살무늬토기, 돌칼, 그물추 등의 유물과 모형,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영상물 등을 통해 석기시대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

몽촌토성은 올림픽공원과 붙어 있으므로 암사역에서 지하철로 올림픽공원역까지 이동한 후 올림픽공원을 둘러본 후 가는 것이 좋다.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에서 나와 동문으로 들어서면 수영, 체조, 펜싱, 역도, 벨로드롬 경기장 등이 나타나고, 서쪽을 향해 이동하면 조각공원과 지구촌공원, 평화의 광장, 국기광장, 서울올림픽기념관 등을 지난다.

몽촌토성은 음악분수가 설치된 몽촌해자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다. 해자를 가로지르는 곰다리길을 건너면 본격적인 몽촌토성 산책길이다. 몽촌토성은 3세기 초 한성백제 시대에 쌓은 것으로 밖으로 해자를 설치하고 성벽 위에는 목책을 설치해 방어 기능을 강화한 방어 시설이었다. 이곳에서는 방어 시설인 해자, 목책, 성벽을 비롯해 수혈 주거지와 저장 구덩이 등을 견찰할 수 있다. 또 몽촌토성 역사관에는 뼈로 만든 비늘갑옷, 철제 화살촉, 원통형 토기조각 등이 전시돼 있다. ▶



도보 거리 8.5km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도보 코스 암사동 선사주거지→(지하철)→올림픽공원·몽촌토성·몽촌역사관
만남 장소 암사동 선사주거지 매표소 앞
찾아가기 지하철 8호선 암사역 1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02, 03번을 이용해 선사주거지 정문 앞에서 하차하거나 4번 출구로 나와 걸어서 15분

찬란한 조선왕조 들여다보기 경복궁 코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표적인 궁궐인 경복궁을 돌아보는 '역사 뒤돌아보기' 코스이다. 도보 관광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닿는 경복궁의 중앙 출입구인 광화문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내년 원료를 목표로 복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광화문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수 없다. 흥례문과 근정문을 지나면 현존 최고의 목조 건물인 근정전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다. 이곳은 왕이 신하들의 조회를 받고, 공식적인 큰 행사를 치

르거나 사신을 맞이하던 장소이다. 근정전 건물은 2단의 월대(月臺) 위에 자리하며, 앞으로는 넓은 마당이 있고, 돌레를 수많은 기둥의 행각이 시각적으로 감싸고 있다.

근정전 뒤로는 왕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하던 사정전이 자리하고 있다. 사정전과 사정문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으로 '천하의 이치를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 임금이 진실로 깊이 생각하고 세밀히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시리를 분별할 수 있겠는가. 더욱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근정전 서쪽으로는 사신 접대나 연회 장소로 이용됐던 연못 안의 누각인 경회루가 자리한다. 48개의 돌기둥이 팔작지붕 목조 건물을 떠받친 모습은 언제 봐도 시원스럽고, 연못에 반사된 경회루의 모습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근정전을 돌아본 뒤 사정전 뒤로 가면 왕과 왕비가 일상생활을 하던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이 나타난다. 교태전 뒤쪽에는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아미산'의 이름을 붙인 인공 언덕이 조성돼 있다. 각종 문양이 아름다운 교태전 담장과 육각형의 면에 덩굴, 학, 박쥐, 봉황, 소나무, 매화, 국화, 불로초, 바위, 새, 사슴 등의 무늬를 넣은 굴뚝도 눈여겨볼 만하다.

침전 터 동쪽으로는 조선시대 대비들이 생활했던 자경전이 있다. 총 44칸 규모로 지어진 건물로 온돌방인 복인당과 자경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기 위한 청연루로 구성되어 있고, 청연루 동측으로 협경당이 연결돼 있다. 자경전 뒤편에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십장생, 당초문, 박쥐문을 정교하게 새긴 굴뚝과 꽃, 나비, 대나무를 새겨 넣은 담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 언뚝에 섬을 만들어 육모지붕을 얹은 육모정을 감상한 후 신무문으로 나서면 도보 관광은 사실상 끝이 난다. 도보 관광 코스에는 인근의 효자동 사랑방이 포함돼 있지만 이곳은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개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하 1층 및 지상 2층, 총면적 3천610㎡ 규모로 지어질 새로운 효자동 사랑방에는 시정·국정홍보실을 비롯해 대통령 관련 전시실, 해외 국민 선물 전시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 일반인들이 대통령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복궁 도보 관광에 앞서 조선시대 왕실 유물 4만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과 민족의 생활상을 들여다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을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도보 거리 2km
소요 시간 3시간
도보코스 경복궁→청와대 앞길(신무문)→효자동 사랑방(중·개축 공사 중)
만남 장소 경복궁 매표소 앞
찾아가기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



도시의 초록빛 허파 종묘·창경궁 코스



종묘는 현대식 건물과 자동차, 인파로 북적이는 도심에서 초록빛 숲으로 둘러싸인 평화롭고 정제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이다. 조선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에게 왕이 직접 제례를 봉행했던 곳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현재 정전에는 19실에 49위, 영녕전에는 16실에 34위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정전 뜰의 공신당에는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도보 관광은 종묘공원 뒤쪽의 종묘 외곽 담장과 연결된 외삼문에서 시작한다. 안으로 들어서서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제향 때 임금이 머물면서 사당을 바라보며 선왕과 종묘사직을 생각했다는 망묘루가 나타난다. 망묘루 동쪽에는 고려 31대 공민왕을 위한 신당이 자리하고, 다시 안쪽으로는 제사 예물을 보관하던 향대청이 있다. 임금이 제사를 준비하던 여숙실을 지나 제수의 진찬 준비를 하

던 전사청과 가문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우물인 제정을 둘러본 후 종묘의 중심 건물인 정전에 도착한다. 정전은 옆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의 건물로 동서 길이가 109m에 달한다. 정전의 길이가 이렇듯 긴 것은 내부에 모실 신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옆으로 증축해 늘렸기 때문이다. 정전 맞은편 왼쪽으로는 16칸에 달하는 기다란 건물인 공신당이 죽어서도 임금을 섬기려는 듯 자리하고 있다.

영녕전을 돌아본 후 울곡로 방향의 북문으로 나서면 곧바로 창경궁과 이어진다. 깔끔하게 단정된 정원 사이의 오솔길을 걸어 동쪽으로 향해 가면 창경궁의 정문이자 도보 관광의 출발점인 흥화문에 닿는다. 흥화문을 뒤로하고 옥천교를 건너면 길은 정전인 명정전으로 이어진다. 명정전으로 향하는 길 좌우로는 신하들의 직위를 나타낸 24개의 품계석이 자리하고 있다. 명정전 왼쪽에는 일제강점기에 헐려다가 해방 후 중건된, 임금이 정사를 보던 문정전이 있고, 뒤쪽으로는 학문을 장려하기 위해 지었다는 숭문당이 위치한다.

외전과 내전을 연결시키는 빈양문으로 들어서면 영조가 과거에서 장원급제한 이들을 접견했던 함인당과 정조와 현종이 태어났던 경춘전, 종중이 죽음을 맞이했던 환경전이 눈앞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환경전 뒤쪽으로 가면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던 통명전을 만나게 된다.

도보 관광이 끝나면 흥화문을 빠져나와 울곡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 닿는 창덕궁을 돌아볼 것을 권한다. 현존하는 조선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것으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도보 거리 2.7km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도보코스 종묘→창경궁
만남 장소 종묘 안내도 앞 (종묘 매표 후 30m 앞쪽)
찾아가기 지하철 종로 3구역에서 도보 5분 거리, 1호선 11번 출구, 3호선 8번 출구, 5호선 8번 출구 이용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자태 북촌·운현궁 코스

북촌은 종로구 가회동, 재동, 삼청동 일대를 아우르는 곳으로, 미로 같은 골목길을 거니는 것만으로 전통 한옥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옛 대신들과 권문세가들이 살았던 이곳에는 한옥과 역사 문화 자원, 박물관, 공방들이 자리하고 있어 흥미롭게 돌아볼 만하다.

운현궁에서 시작되는 도보 관광은 북촌문화센터와 불교미술박물관, 한상수 자수박물관, 가회박물관, 매듭공방, 한옥체험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을 돌아보는 코스와 북촌문화센터,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옷칠공방, 가회동 31번지 한옥촌, 세계 장신구 박물관, 티베트박물관, 종친부를 돌아보는 코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코스를 선택해도 기와지붕이 닿을 듯한 한옥들의 멋과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고, 흥미로운 전통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도보 관광이 시작되는 운현궁은 조선 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12세까지 살았던 곳이자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개인 주택이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권세가 전해져오는 건물이다.

북촌문화센터는 조선 말기 세도가였던 민형기의 가옥으로 ㄷ자형 문간채와 ㄱ자형 사랑채와 안채, 전시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행랑채로 이루어져 있다. 북촌의 역사와 문화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근대 한옥 건축을 엿볼 수 있다. 이곳 사랑채에서는 국악, 서예, 민화, 보자기 등 다양한 전통문화 강좌를 열고 있다.

불화, 불상, 조각 공예품을 전시하는 불교미술박물관, 전통 자수의 맥을 잇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한상수 씨의 자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한상수 자수박물관, 부적과 민화, 민속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부적, 기와탁본, 단청엽서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가회박물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들이 옹기와 민화, 나전칠기, 옷칠 등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등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또 갖가지 사연과 내용을 담고 있는 세계 각국의 전통 장식품들이 전시된 세계장신구박물관, 티베트 리마승의 의복과 제기, 불상 등을 전시하는 티베트박물관 등도 흥미롭게 돌아볼 만하다.

도보 거리 3.5/4km
소요 시간 전통 문화 체험 시간 제외) 3시간/3시간 30분
도보 코스 1코스 운현궁→북촌문화센터→한국불교미술박물관→한상수 자수박물관→가회박물관→매듭공방→한옥체험관→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2코스 운현궁→북촌문화센터→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옷칠공방(화문석공방)→가회동 31번지 한옥촌→세계장신구박물관→티베트박물관→종친부
만남 장소 운현궁 수직사 앞(운현궁 매표 후 오른쪽)
찾아가기 3호선 안국역 4번 출구



낭만의 돌담길이 있는 문화 산책로 덕수궁·정동 코스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경향신문사로 연결되는 정동길은 서울의 으뜸가는 산책로로, 낭만을 찾는 연인들과 젊은이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이다. 주변으로는 덕수궁을 비롯해 (구)러시아공사관, 중명전, 서울역사박물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자녀들과의 역사 탐방 코스로도 손색이 없다. 이 코스는 매일(월요일 제외) 오전 11시와 오후 2시, 3시 30분에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진행되는 덕수궁의 대한문 앞에서 시작된다. 대한문을 들어서면 고층 빌딩 안쪽으로 단정한 모습의 정원과 건물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대한문에서 정면의 길을 따라가면 오른쪽으로 중화문을 지나 임금이 하례를 받거나 국가 행사를 거행하던 중심 건물인 중화전에 닿는다. 이곳은 고종 황제가 당시 경운궁이라 불렀던 덕수궁에 재위하는 동안 정점으로 사용

했던 건물로, 규모는 작지만 망국의 위기에 처했던 당시의 역사를 엿보게 하는 곳이다.

중화전을 지나면 침전이었던 석여당과 즉조당, 편전이었던 함녕전과 덕홍전을 볼 수 있고, 대한제국 시기에 지어진 석조전, 정관헌 등의 서양식 건물들도 자리하고 있다. 특히 석조전 서관은 한국의 근대 미술과 관련된 전시를 여는 덕수궁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미술관은 6월 28일까지 보수 공사로 휴관한다.

5월에 덕수궁을 방문하면 석조전 뒤 오솔길에서는 산철쭉, 함녕전 뒤에서는 모란, 석조전 앞 분수대 인근에서는 영산홍이 꽃을 피우는 화려한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석조전 뒤쪽의 문을 통해 나오면 이문세의 노래 '광화문 연가'가 자연스럽게 흥얼거려지는 낭만적인 정동길이 이어진다. 1885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감리교 교회인 정동제일교회와 정동극장을 지나며 한가롭게 걷다 보면 오른쪽의 골목길 안쪽으로 중명전이 나타난다.

중명전은 1900년 덕수궁 별채로 건립된 서양식의 아담한 2층 건물로 고종이 헤이그 밀사를 접견한 장소이자,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다. 정동길을 따라 다음 골목에는 고종이 을미사변 후 파천해 1년간 머물렀던 (구)러시아공사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후 경향신문사 앞길을 건너면 경희궁으로 이어진다. 경희궁은 조선 후기 대부분의 왕이 승하 또는 즉위했던 곳으로 일제에 의해 강제 철거됐으나 현재 송전정, 흥화문 등 일부 전각이 복원되어 있다. 정동제일교회 건너편의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경희궁 가는 길의 오른쪽에 위치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도보 거리 1.4km
소요 시간 2시간
도보 코스 덕수궁→중명전→(구)러시아공사관→경희궁
만남 장소 덕수궁 매표소 앞
찾아가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 2호선 12번 출구

도심 속 사색 공간 최순우 옛집·길상사 코스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로 유명한 해곡 최순우 선생의 옛집을 비롯해 만해 한용운과 소설가인 상허 이태준의 고택 등 역사·문화 관련 선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코스이다.

도보 관광은 최순우 옛집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으로 보존되고 있는 '시민문 화유산 1호' 의 기와집으로, 최순우 선생은 1976년부터 1984년 작고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ㄱ자형 안채와 ㄴ자형 바깥채로 된 ㄹ자형 집으로 아담한 안마당과 뒷마당이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내부는 유리창을 통해 들여다볼 수 있는데, 최순우 선생이 사용했던 책상과 고서들이 단정하게 정리돼 있다.

최순우 옛집을 빠져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뒤편의 조선시대 성곽을 돌아본 후, 조선 세종이 누에치기를 장려하기 위해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선잠단지를 잠깐 둘러보면 도보 코스는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길상사까지 곧장 이어진다.



길상사는 1997년에 설립된 절로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도심에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절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고, 고즈넉하며 편안한 분위기가 전해진다. 단청이 없는 건물들은 소박하면서도, 울창한 초록빛 숲이 우거진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단정한 아름다움을 전한다. 경관을 한가롭게 돌아보면 마음마저 평안해진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와 성북초등학교 앞길을 지나면 역사 속 인물들의 옛 가옥들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세우졌 장사로 갑부가 된 이종석의 별장이었다는 이재준 가옥에서는 당시 부유한 상인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재준 가옥 바로 옆 골목 안쪽에는 만해 한용운이 옥고를 치른 후 머물렀던 심우장이 있다. 심우장은 한옥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북향집으로, 한용운은 남향으로 터를 잡으면 조선총독부와 마주보게 되므로 반대편 산비탈을 집터로 선택했다. 한용운이 쓰던 방에는 만해의 글씨, 옥중공판기록 등이 있고, 마당에는 그가 직접 심은 향나무가 서 있다.

심우장 골목을 빠져나와 성북2동 주민센터를 마주보고 왼쪽으로 걸음을 옮기면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이 있다. '가마귀', '달밤', '복덕방' 등의 단편 현대소설을 남긴 이태준의 고택은 현재 '수연상방'이라는 전통찻집으로 따스한 차를 마시며 소설가의 손때 묻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도보 거리 4km
소요 시간 3시간
도보 코스 최순우 옛집→서울성곽→선잠단지→길상사→이재준 가옥→심우장→이태준 가옥(수연상방)
만남 장소 홍익중고교 입구 버스정류소
찾아가기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 1111, 2112번 버스, 03번 마을버스를 이용해 홍익중고교 입구에서 하차, 도보로는 15분



도심 속 휴식 공간 청계천 코스



서울의 한복판을 흐르는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면서 고층 빌딩이 즐비한 수도의 중심을 구경할 수 있는 코스이다.

청계천 코스는 청계광장에서 시작해 광통교, 삼일교, 수표교, 새벽다리, 오간수교를 돌아보는 제1코스와 청계천문화관에서 출발해 판자집 테마존, 두물다리, 고산자교, 무학교, 비우당교, 황학교, 서울풍물시장까지 이동하는 제2코스로 나뉜다. 코스는 동대문 인근의 오간수교를 중심으로 두 개로 나뉘는데,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제1코스는 동아일보사 옆의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청계광장에서는 수변폭포가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리는 광경을 구경할 수 있고, 광장 바닥에는 청계천의 모습을 100분의 1로 축소한 60m 길이의 모형이 마련돼 있어, 청계천 물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청계천의 왼쪽 길을 따라 첫 번째 다리인 모전교를 건너면 조선시대에 사람과 마차가 함께 지나다녔던 광통교가 자리한다. 차량의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 원래 있던 자리보다 155m 상류로 옮겨왔다. 특히 광통교는 조선시대 청계천에서 가장 큰 다리였다고 한다. 광교와 장동교를 지나 삼일교 사이에는 정조가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과 현릉원(사도세자 무덤)에 다녀오는 8일간의 행차를 그린 '정조반차도'가 도자 벽화로 조성돼 있다. 도자기 타일 4천960장을 이어 붙인 그림은 길이가 186m에 이른다.

개천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수표석을 세웠다는 수표교와 일제강점기에 들어선 관수교, 세운교, 배오개다리, 광장시장과 방산시장이 있는 새벽다리를 지나 마전교를 건너 후 다시 오른쪽 길을 이용해 나래교와 버들다리를 지나면 패션의 메카인 동대문 패션타운에 닿는다.

제2코스는 청계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청계천문화관에서 출발한다. 청계천 하류 방향의 고산자교를 건너 다시 상류 방향으로 이동하며 도보 관광을 즐긴다. 문화관 앞으로는 사무실과 만화방, 가게, 기획전시실 등으로 구성된 1960년대 청계천변을 재현한 판자집 테마존이 자리하고 있다. 반세기 전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고산자교와 두물다리, 무학교, 비우당교를 지나며 청계천의 유연한 흐름을 감상하고 나면 황학교에 다다른다. 인근에는 황학동 도깨비시장이 자리를 옮긴 서울풍물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풍물시장은 무지개를 콘셉트로 빨강동, 주황동, 노랑동 등 7개 색 상별로 각기 다른 분위기의 상가를 조성했다.

제1코스
도보 거리 2.7km
소요 시간 2시간
도보 코스 청계광장→광통교(옛다리 복원)→삼일교(종로·인사동)→수표교→새벽다리(광장시장·방산시장)→오간수교(동대문·동대문 패션타운)
만남 장소 청계광장(동아일보사 관련 벤치)
찾아가기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제2코스
도보 거리 2.3km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도보 코스 청계천문화관→판자집 테마존→고산자교→두물다리→무학교→비우당교→황학교→서울풍물시장
만남 장소 청계천문화관 앞
찾아가기 지하철 2·5호선 광삼리역 7번 출구에서 나와 마을버스 03번이나 08번을 이용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차



전통과 현대의 만남 남산성곽 · 한옥마을 코스

조선시대의 역사 유적과 현대적인 문화시설,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의 장충단 공원에서 출발해 성곽을 따라 오른 후 남산의 싱그러운 산책로를 따라 이동해 서울 타워를 돌아본 뒤 남산골 한옥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장충단 공원은 을미사변과 임오군란으로 순직한 충신과 열사를 위한 제단인 '장충단비'가 있는 곳으로, 이곳에는 원래 청계2가에 있던 다리를 1959년 청계천을 복개하며 옮겨온 수표교가 있다. 수표교는 조선 세종 때 청계천의 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가설한 돌다리로 다리 돌기둥에 경(庚), 진(辰), 지(地), 평(平)이란 표시를 해서 물의 깊이를 잴다고 한다.

장충단 공원을 빠져나와 장충체육관을 끼고 돌면 신라호텔 뒤편으로 이어지는 성곽을 볼 수 있다. 성곽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면 예스러운 풍취가 저절로 전해져온다. 도보 코스는 서울타워호텔을 지나 국립극장으로 이어지고 이곳에서 N서울타워까지 이동하는 순환버스에 탑승한다.

버스에서 내리면 조선 태조가 설치해 1894년까지 사용됐던 것을 복원한 봉수대를 둘러본 후 N서울타워에 오른다. 초속 4m의 속도로 오르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전망대에 도착하면 초록빛과 꽃으로 물든 남산과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 고층 빌딩이 화려한 도심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화장실인 '하늘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다.

N서울타워를 둘러본 후에는 다시 순환버스를 타고 남산골 한옥마을로 이동한다. 이곳에는 순정효황후 윤씨 친가를 비롯해 부마도위 박영호 가옥,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 오위장 김춘영 가옥, 도편수 이승업 가옥 등 전통 가옥 5채를 옮겨놓았다.

각 가옥들에는 조선시대 사대부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생활 방식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옥의 규모와 살았던 사람의 신분에 걸맞은 가구들을 예스럽게 배치했으며, 전통공예 전시관에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들의 작품과 관광 기념품이 전시돼 있다.

도보 거리 10.5km
소요 시간 3시간 30분
도보 코스 장충단 공원(수표교, 장충단비)→남산 성곽→국립중앙극장→(순환버스 탑승)→봉수대, N서울타워→(순환버스 탑승)→남산골 한옥마을
만남 장소 장충단 공원 입구
찾아가기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연인들의 데이트 명소 낙산성곽 · 이화장 코스



넌다. 정신을 혼란케 하는 동대문 거리의 북적거림과 소음이 사라지면 산책로가 시작된다. 성곽을 따라서는 초록빛을 머금은 나무들과 풀이 성벽과 어우러져 있고, 곳곳에는 벤치와 정자가 있어 다리를 쉬게 할 수 있다. 쉬엄쉬엄 산책하듯 30여 분을 오르다 보면 성곽길은 자연스럽게 낙산공원으로 이어지지만 먼저 오른쪽 길로 접어들어 비우당(庇雨堂)을 들른다. 비우당은 조선시대 첨백리의 상징인 하정 유관 선생을 기리기 위해 그가 살던 집에 지붕 이수광이 지은 정자이다. 현재 이곳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고, 비우당 뒤편에는 정순왕후의 일화가 얽힌 자주동샘이 있다.

비우당을 나와 길을 되돌아가면 '서울의 몽마르트르'라고 불리는 낙산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전망대에 서면 도봉산, 인왕산, 남산 등 도심의 명산과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룬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마음껏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다.

낙산공원을 내려와 골목을 따라 대학로 방향으로 이동하면 이화장이 나타난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47년부터 살았던 기와집으로 프린세스가 여사가 1970년부터 1992년까지 생활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현재 이승만 기념관으로 그의 친필 문서와 타자기, 반지 등의 유품이 전시돼 있다.

동대문(홍인지문)을 출발해 이대부속병원 옆의 성곽 길을 따라 이동하며 항수 어린 골목길을 지나고,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낙산공원 전망대에 오르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사저였던 이화장을 돌아보는 코스이다. 경치가 수려하고, 주변 경관이 아늑해 연인들이 즐겨 찾는 데이트 코스가 각종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국보 1호인 승례문이 화마에 소실되어 복원 공사 중이다. 이 코스를 선택했다면 보물 1호인 동대문을 좀 더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자. 서울을 둘러싼 성곽의 4대문 중 하나인 동대문은 태조 5년(1396)에 건립되어 고종 6년(1869)에 새로 지어진 것으로, 도성 8개 성문 중 유일하게 반달 모양의 웅성으로 둘러진 곳이다. 지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서울의 상징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이다. 동대문에서 이대부속병원 옆으로 난 창신 성곽길로 접어들면 예전 동대문과 이어져 있었을 서울 성곽이 모습을 드러

도보 거리 2.5km
소요 시간 3시간
도보 코스 동대문(홍인지문)→서울성곽→비우당(자주동샘)→낙산공원(전망대)→낙산전시관→이화장
만남 장소 이대부속병원 우측 골목 초입
찾아가기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1번 출구, 4호선 9·10번 출구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아름다움 한강 · 절두산성지 코스



서울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는 단연 한강이다. 유람선을 타고 바라보는 한강이나 남산의 N서울타워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좋지만 진정한 매력을 발견하고 싶다면 역시 발로 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지하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를 나와 양화대교 오른쪽의 합정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걸어가면 강기슭 암반 위에 세워진 망원정이 나타난다. 이곳은 조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령대군의 별장으로 선조들의 정자 문화를 엿볼 수 있다. 1925년 대홍수와 한강 개발 등으로 완전히 소실된 것을 1989년에 복원한 것이다. 왕이 술을 마시며 시를 읊었던 정자에서는 한강변을 달리는 자동차와 유유히 흘러가는 한강이 내려다보인다.

망원정에서 한강의 정취를 바라본 후에는 한강변에 마련된 한

강시민공원 망원지구를 따라 산책하며 한강의 정취를 감상한다.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에선 일상의 여유가 묻어난다.

절두산 순교 박물관으로 걸어가다 보면 당산철교 일대에 양화나루터와 잠두봉 유적이 자리한다. 양화나루터는 도성에서 김포와 강화를 연결하던 양화진을 일컫는 것으로 한강나루, 삼전도와 함께 조선 3대 나루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잠두봉 유적은 천주교 한국교구가 1966년 잠두봉을 중심으로 성당과 절두산 순교 박물관을 세우고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조선 고종 3년(1866) 병인박해 때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다.

절두산 순교 박물관에는 한국 천주교회 관련 사료와 유물 및 유적 3천여 점이 전시돼 있고, 야외에는 한국의 순교 성인 103위 중 29위의 성인과 무명 순교자 1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잠두봉 유적을 돌아본 후 마지막 목적지는 양화진 외인묘지이다. 이곳에는 연세대를 세운 H.G.언더우드(부인 홀튼 여사와 아들인 원한경 박사 부부, 배재학당을 세운 H.G.아펜젤러 2세와 딸 A.아펜젤러(이화여전 초대교장), 제중원과 기독교서회를 세운 J.W.헤론과 숭실학교 설립자 W.M.베어드 등 한국의 역사 속에서 영향을 주었던 외국인들의 묘 450기가 들어서 있다. ▶

도보 거리 3km
소요 시간 2시간 30분
도보 코스 망원정→한강→양화나루, 잠두봉 유적, 절두산 순교 박물관→양화진 외인묘지
만남 장소 양화진 소공원
찾아가기 지하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나와 직진 10m 지점



서울시에서는 서울문화유산과 함께 하는 도보 관광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dobo.visitseoul.net)으로 관광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내국인(20명 이상)은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외국인(20명 이하)은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주말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시(관광지 휴무일·설날과 추석 연휴 휴무)에 이용할 수 있다. 관광지 입장료와 문화 체험료 등은 개인 부담이다. 문의 : 02-2171-2459